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의 영혼관  
(The Soul in Calvin)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42 no.4 (Winter, 1975):48-54

통을 갖고 있다. 한국 보수주의 신학이 輸入神學的 性格을 脫皮하고 복수대변 인적 체제를 갖추어 아세아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신학으로 자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땅에서 반세기 동안을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대변 지적 역할을 담당해온 神學指南의 권위성을 더욱 향상시킴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다수의 한국 에큐메니칼계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신학을 거론할 때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不在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있어서의 自由主義 神學活動狀況에 대한 일면도적인 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건재를 萬天下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神學指南의 신학적으로도 권위있고 오랜 시간의 學術的 研究가 뒷받침해 주는 많은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神學指南의 신학적 권위성을 더욱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 하겠고 오늘날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교회와 신학의 대변적 역할을 하고 있는 基督敎思想誌와 같이 「대중에 풀어지는 학술지」가 되어서 神學指南의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文化改造의 影響力을 強化하기 위해서 大衆讀者層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시도에 적극성을 띠어야 할 줄 안다.

맺는 말

해방 30년의 한국 보수주의 신학은 健在하다. 이종성 교수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의 신학적 과제에서 한국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가 「신 바리새주의」로 단죄하는 듯한 한국보수주의 신학은 실은 90년전에 한국교회가 초기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받아들인 淸敎徒的 改革主義 正統 신학을 意味하기 때문에 韓國敎會史와 똑같은 역사를 갖고서 한국교회의 급속한 成長과 발전에 기여한 신학이며 현재도 계속 한국교회의 21世紀的 擴張을 鞏固히 준비하고 있는 신학인 것이다.<sup>5)</sup> 한국보수주의 신학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보수주의 신학은 그런 몇가지 문제점을 능히 克服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보다 건전하고 착실한 發展의 契機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매이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改革主義的 確信,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느니라”(신 28:14) 正統信仰을 갖고서 韓國保守主義 神學을 계속 키우고 발돋움하는 일일 것이다.

5) 간하백, *op.cit.*, p. 51 참고.

# 칼빈의 靈魂觀

申 福 潤

<目 次>	
I. 序 論	IV. 靈魂 : 보다 高尚한 부분
II. 靈魂의 不滅性	V. 肉體와 靈魂의 聯合
III. 靈魂의 被造性	VI. 結 語

## I. 서 론

일반적으로 프랑스인들은 칼빈을 그리스도敎 人文主義者로 본다. 독일인들은 칼빈을 그리스도敎 神學者로 본다. 그리고 학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敎 哲學者로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칼빈은 이 셋을 다 가진 분이라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칼빈의 思想이 철학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靈魂問題에 있어서 Plato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판단이다. 이 사실은 그가 자기는 플라톤 學派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sup>1)</sup> 칼빈은 플라톤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고 또한 플라톤이 靈魂의 不滅을 믿은데 대하여 예찬한 일까지도 있었다.<sup>2)</sup> 물론 이것은 플라톤의 사상 전체를 시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靈魂觀의 일부에 찬사를 보냈다는 것을 뜻한다. 더우기 그가 찬사를 보냈다고 해서 플라톤의 영혼불멸관이 바로 자기 사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플라톤에게서 영혼불멸에 대한 일종의

1) John Calvin, "Last Admonition to Joachim Westphal",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by Henry Beveridge, II (Grand Rapids: Eerdmans, 1953), p. 456.  
2) *Inst.*, I. 15. 6. (이것은 칼빈의 基督敎綱要 第1卷 15장 6항을 뜻한다.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略字를 쓰게 될 것이다.)

自然的인 理解가 발견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이었다.

칼빈의 靈魂觀은 人間創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인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같이 참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肉體와 靈魂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 두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칼빈은 조금도 難色을 띠지 않았다. 이 사실로 보아 칼빈은 헬라 哲學의 三分說과는 달리 二分說의 주창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II. 靈魂의 不滅性

과연 칼빈은 “영혼”(anima)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명백히 말하고 있다.

靈魂이라는 말은 不滅的인 靈이 인식도 創造된 實在, 그리고 보다 고상한 부분임을 뜻한다.<sup>3)</sup>

칼빈은 여기서 靈魂의 세가지 구별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영혼이 不滅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創造되었다는 점, 세째는 인간의 두 부분 중에서 영혼이 보다 高尚하다는 점

이다.

칼빈은 1559년의 決定版 기독교강요에서 心理學的인 논증과 聖書的인 근거를 들어 이 靈魂不滅性의 문제를 확증하였다. 여기서 그는 영혼이 實在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호흡이나 육체에 주입된 어떤 힘(努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sup>4)</sup> 아무리 인간이 어둠속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자기네 不滅意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칼빈이 입증한 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증거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첫째는 良心이다. 양심이 善惡을 가려내며 하나님의 審判에 응하게 된다는 사실은 곧 영혼이 불멸하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sup>5)</sup> 實在가 아닌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갈 수 있으며 또한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하고 칼빈은 반문하였다.

둘째로 하나님에 관한 認識 자체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영혼의 불멸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sup>6)</sup> 왜냐하면 사라져 없어지는 勢力은 생명의 근원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Inst.*, I. 15. 2. Porro hominem constare anima et corpore, extra controversiam esse debet.

4) *Ibid.*, atque animae nomine essentiam immortalem, creatam tamen intelligo, quae nobilior eius pars est.

5) *Inst.*, I. 15. 2.

6) *Ibid.*

7) *Ibid.*

세째로 칼빈은 인간정신의 여러가지 高貴한 機能들이 또한 그 不滅的인 實在의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野獸들이 소유하는 感覺은 육체를 더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敏捷함은 天地와 自然의 비밀을 통찰하며, 知性과 記憶으로 모든 세대를 이해하며, 每事物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類別하며 또한 過去에서 未來事物을 결론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신의 이러한 민감함은 분명히 육체와는 구별되는 어떤 무엇이 사람에게 감주어져 있다는 것을 顯示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天使에 대한 概念이 있지만 이해 대하여 육체는 조금도 그러한 개념을 形成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sup>8)</sup>

네째로 영혼의 불멸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睡眠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다. “왜냐하면 수면은 아직 發生하지 않은 事件의 觀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未來事物을 豫示해 주기 때문이다.”<sup>9)</sup>

다섯째로 칼빈은 聖書의 많은 귀절들을 통하여 영혼의 불멸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聖書에 나타나는 그와 비슷한 귀절들은 영혼을 육체와 분명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人間이라는 이름까지 그 영혼에 붙여서 이것이 인간성의 주요부분이라는 것을 지시해 주고 있다.”<sup>10)</sup>

칼빈은 여기에 더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形象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길게 논하고, 여기서 靈魂不滅의 確證을 더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靈魂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座所라고 그는 주장하였다.<sup>11)</sup> 그리고 칼빈은 플라톤이 靈魂의 不滅的 實體임을 아무리 명백히 주장했다 하더라도 世俗哲學者들에게서 영혼에 대한 올바른 定義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다.<sup>12)</sup>

## III. 靈魂의 被造性

칼빈은 영혼이 불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創造된 實體라고 하였다.<sup>13)</sup>

8) *Ibid.*, Cf. Tertullian, *Against Marcion* II. ix (tr. *The Ante-Nicene Fathers* III, 304).

9) *Ibid.*

10) *Ibid.*, 칼빈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성서의 여러 귀절들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골 4:19; 고후 5:4; 5:10; 7:1; 빌후 1:13,14; 빌전 1:9,22; 2:11; 2:25; 고후 1:23; 5:6,8; 히 12:9; 13:17; 마 10:28; 눅 12:4,5; 16:22 등이다.

11) *Inst.*, I. 15. 2 and 3. Cf. T.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1949, p.35ff.

12) *Inst.*, I. 15. 6.

13) *Inst.*, I. 15. 2.

영혼은 不滅的이긴 하지만 永遠한 것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4)</sup> 靈魂의 不滅은 永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영혼의 實體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無에서부터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創造는 流出이 아니라 無에서부터의 存在의 시작인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人間創造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永遠한 存在의 일부를 인간의 靈魂으로써 인간 속에 심어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sup>16)</sup> 인간의 영혼이 불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靈魂이 하나님의 權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sup>17)</sup>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영혼의 불멸성은 플라톤이 생각한 것처럼 自然的인 특성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육체가 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은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바람처럼 될 것이다.<sup>18)</sup>

14) Cf.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by Harold Kn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p.66.

15) *Inst.*, I.15.2.

16) *Ibid.*

17) John Calvin, “Psychopannychia”, in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 by Henry Beveridge, III (Grand Rapids: Eerdmans, 1958), p.478.  
이 논문은 1533年 11月, 칼빈이 그의 친구 Nicolas Cop의 파리大學 學長 취임연설 원고 초안 사전으로 피난하여 친구인 Loui du Tillet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집필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靈魂轉異說을 반박하고 있다.

18) *Ibid.*, p.478.

19) *Corpus Reformatorum*, 53, 621.

이렇게 생각할 때 靈魂의 不滅은 하나님의 恩賜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 후 최후심판날까지 인간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가끔 강한 어조로 표현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특수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인간의 죽음은 마치 개나 말의 죽을과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고상하고 보다 가치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우리에게 이 특수한 특혜를 곧 靈魂의 不滅性을 주신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sup>19)</sup>

육신의 죽음 저편에서 靈魂의 生命을 보존하며, 최후 심판날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恩惠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疎外될 때에는 이 영혼 불멸성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불멸성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聖靈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인 뿐이라고 칼

빈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人間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敎會뿐이다. 하나님과 인간 자신에 관한 올바른 認識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sup>20)</sup> 人間은 하나님처럼 永遠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野獸처럼 멸절될 존재도 아니다. 인간의 本質的인 존재는, 이 땅위에 나그네트 있는 동안 그리고 육신의 죽음 후 최후심판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허락받은 사실에 있는 것이다.

#### IV. 靈魂 : 보다 高尚한 부분

인간은 肉體와 靈魂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1)</sup> 그리고 영혼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다 高尚한 부분이다. 이 영혼은 理性과 意志로 이루어져 있으며<sup>22)</sup> 이것 때문에 인간은 非理性的인 모든 피조물에게서 구별된다. 영혼은 안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宗教的 認識의 근원이 되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책임의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sup>23)</sup>

인간에게 있어서 靈魂이 육체와 구별되는 本質的인 무엇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흠집”에서 살다가<sup>24)</sup> 죽

20) *Inst.*, I.1.1; I.15.1.

21) *Inst.*, I.15.2.

22) *Inst.*, I.15.7.

23) *Inst.*, I.15.2.

24) 욕 4:19.

25) 맨후 1:13, 14.

을 때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결과<sup>25)</sup> 그리고 각각 몸으로 행한 行爲에 따라<sup>26)</sup> 마지막날에 報償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벗어 버린다는 것<sup>27)</sup>을 聖靈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칼빈은 성서의 여러 구절을 들어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결과 이 영혼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부분임을 입증하였다.<sup>28)</sup>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靈魂이 육체에게서 구별되는 특수 양상은 무엇보다도 그 不滅性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死後에도 하나님 앞에서 責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 V. 肉體와 靈魂과의 聯合

칼빈은 육체와 영혼의 연합을 가르치고, 이 연합은 아무런 혼란이 없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sup>29)</sup> 동시에 그는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고, 이 구별은 哲學的인 것이 아니라, 聖靈的인 구별이라고 주장하였다.<sup>30)</sup> 그리고 복음의 저극히 적은 교훈이라고 플라톤의 사상 전체를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였다.<sup>31)</sup> 뿐만 아니라 철

26) 고후 5:10

27) 고후 5:4.

28) *Inst.*, I.15.2.

29) *Inst.*, II.14.1.

30) *Inst.*, I.5.5; I.15.2.

31) *Commentary on John*, 16:29.

학자들의 영혼관은 항상 不確實한데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2)</sup>

영혼불멸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思想이 아무리 철학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칼빈의 교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靈學的인요, 神學的인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서술적인 觀念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그의 靈魂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함께 맡기셨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sup>33)</sup>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하나님인요, 즉 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이다.

칼빈은 그의 최초의 神學 論文인 *Psychopannychia*에서 인간의 성령은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義人의 영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sup>34)</sup> 하나님은 영혼의 生命이요, 영혼은 육체의 성명이다.<sup>35)</sup> 동시에 罪가 없었더라면 영혼과 육체의 分離가 없었을 것이었다. 罪가 없었더라면 육체도 不滅하였을 것이다.<sup>36)</sup> 그러나 罪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肉體와 靈魂의 分離라고 말하는 것이다.<sup>37)</sup>

칼빈은 한편,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罪의 상태 하에 있는 육체, 곧 獄舍(ergastulum)<sup>38)</sup> 또는 갑옥(carcase)<sup>39)</sup>이라 불렀다. 동시에 이 육체는 하나님께 산 祭壇으로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主 斷齋文의 내제 부분이 보여주는 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鑑理하에 두시는 것을 부끄럼이 여기지 않으셨다.<sup>40)</sup> 이와같이 칼빈은 영혼과 함께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sup>41)</sup>

칼빈은 플라톤과는 달리 바르 이 肉體가 復活한다고 가르쳤다. 물론 부패한 육체가 마칠내는 부활하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理性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철학자들이 영혼의 不滅을 말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시인하는 자는 거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sup>42)</sup> 또한 그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육체의 復活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  
도 영혼의 不滅性에 대하여 많이 말하

37) *Commentary on I Thessalonians*, 4:16.

38) *Inst.*, I. 15. 2.

39) *Inst.*, III. 9. 4.

40) *Inst.*, III. 20. 44.

41) *Inst.*, III. 25. 7.

42) *Inst.*, III. 25. 3.

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來世에 대한 그들의 진술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靈的인 생활은 부활의 所望에 달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그 부활을 기다린다고 聖書가 말하기 때문에 復活을 不信하는 자는 역시 영혼의 不滅性을 박탈당 버리는 것이다.<sup>43)</sup>

이와같이 육체의 부활을 떠나서는 영혼의 불멸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칼빈은 근본적으로 플라톤과 다른데가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靈魂의 復活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것이다.<sup>44)</sup> 칼빈이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復活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立證해 주었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부활은 自然過程의 한 부분이 아니고, 全能하신 하나님의 異蹟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곧 그의 육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sup>45)</sup> 칼빈은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를 꺼리 않았다. 다만 육체의 특질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바로 그 육체대로 부활하

43) *Commentary on Matthew*, 22 : 23.

44) *Psychopannychia*, p. 470.

45) *Inst.*, III. 25. 7.

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였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要素들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解消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sup>46)</sup>

## VI.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의 靈魂觀을 간단히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나는 그의 靈魂思想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봄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다. ① 靈魂은 不滅的인 實在인다는 점. ② 그러나 불멸적이라고 해서 永遠한 실재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無에서부터 영혼을 하나 하나 창조하신다는 점, (여기에서 우리는 靈魂起源說에 있어서 칼빈이 創造說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③ 靈魂이 理性과 意志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보다 高貴한 부분이라는 점. ④ 그리고 영혼이 육체와 연합함에 있어서 아무런 혼란이 없는 동시에, 이 두 부분은 또한 완전히 區別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헬라哲學의 三分說과는 달리 二分說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총회 신학대학 교수>

46) *Inst.*, III. 25. 3. Cf. *Commentary on John*, 3 : 7.

32) *Psychopannychia*, p. 420.

33) *Commentary on Matthew*, 27 : 50.

34) *Psychopannychia*, p. 450.

Cf. *Commentary on Matthew*, 17 : 3.

35) *Ibid.*, p. 441.

36) *Commentary on Genesis* 3:19; 2:17.